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관한 연구*

안미영**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약하지만 더 평등하게 무급노동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는 20~44세 연령대에서만 나타났다. 전체 시간제 근로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량은 10세 미만 가구원수에 의해 주요하게 달라졌으며 전업주부와 달리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시간제 근로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량은 소득 자원과 무관한 반면 무급노동 분담률은 주로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이 진보적이면 감소하면서도 본인의 절대적 소득이 높으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44세 시간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전업주부와 달리 10세 미만 가구원수, 배우자의 교육수준이나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분담률은 본인의 절대적 소득에 의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시간제 근로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량은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주요하게 달라졌다. 분담률은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과 건강상태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에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무급노동 분배, 시간제근로, 젠더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IA5A2A01926961)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myang@kookmin.ac.kr)

I. 서론

지난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두드러진 시간제 근로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는 2013년 6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였고 2012년 53.5%이던 여성 고용률을 2017년 61.9%로 증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OECD(2018)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5-64세 한국 여성 고용률은 56.2%로 2012년 53.5%에서 2.7% 상승하였고, 15세 이상 전체인구 중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2000년 7%에서 2016년 10.9%로 상승하였다(김현경 외, 2015). 시간제 근로의 증가는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5.1%에서 6.8%로 소폭 상승한 반면 여성의 경우 동기간 9.8%에서 16.5%로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에서 63.6%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 증가는 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났는데 독일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중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2000년 17.6%에서 2016년 22.1%로 증가하였고, 네덜란드는 32.1%에서 37.7%로 상승하였다. 새천년 이후 나타난 한국의 여성 시간제 근로 증가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시간제 근로 관련 기존 논의는 일자리의 질을 다루기도 하였으나(김윤호 외, 2014; 이옥진, 2013), 대다수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였다(김양희, 2013; 김혜진, 2015; 국미애, 2013; 문지선, 2015; 이주희, 2012; 신경아, 2013, 2014, 2015, 2016; 홍승아, 2012; 황수경, 2011).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젠더 평등에 가지는 함의에 대해 학자들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주희(2012: 45)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며 여성의 다름을 강조하는 정책 중 가장 큰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안적으로 Fraser(1994)의 보편적 돌봄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 및 돌봄 노동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황수경(2011)과 홍승아(2012)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의 높은 시간제 근로를 지적하며 한국의 시간제 근로 확산은 젠더 노동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경아(2013)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1.5소득자 가족을 증가시키고 노동자 가족의 돌봄 공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간제근로

는 여성의 돌봄 의무의 전담화를 강화할 것이며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함의한다. 시간제 근로 여성은 여전히 돌봄 노동을 전담하게 될 것이며, 임금을 획득하겠지만 가족 내에서 남성에게 대한 경제적 의존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며,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어 낮은 성취감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시간 노동이 규범인 노동 중심 사회에서 시간제 노동은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가족적 합리성을 위해서 선택되는 노동양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간제 노동자인 여성은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중심사회에서의 시간제 노동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삶의 양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핵심 이슈는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젠더평등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젠더평등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사적 영역인 가구 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젠더 관계의 핵심 이슈이다.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경제적 협상을 통해 사적 영역인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시간제 근로와 젠더 평등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Stier and Lewin-Epstein(2000)은 “시간제 근로”는 가사노동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나 소득과 비슷한 의미의 독립적인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한 시간제 근로를 대변하는 용어는 주변적인 노동, 낮은 임금, 비정규직등이다. 그렇다면 시간제로 근로하는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와 비슷하게 심각하게 젠더화 된 무급노동 분배를 경험하는가? 그들은 가사노동분배에 대해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한국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연령대에 따라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40대 이상의 특히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신경아, 2013; 김현경 외, 2015). 연령대별 젠더 관계를 생각해 보면 20-59세 연령대의 기혼 남성의 대부분은 전일제 근로를 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은퇴로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참여여부 그리고 소득에 관한 젠더 관계의 양상이 연령대별로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가지는 젠더 평등에 대한 함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섹션에서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로 시간제 근로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분석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기혼여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 근로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한국의 시간제 근로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논의하였다.

II. 기존 문헌 분석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무급노동 분배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왔다.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있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간의 무급노동 분배의 불평등을 주로 시간제약(Time constraint)(Blood & Wolfe, 1960),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Brines, 1994; Greenstein, 2000; Sørensen & McLanahan, 1987; Bianchi et al, 2000; Batalova & Cohen, 2002; Bittman et al, 2003) 혹은 성역할인식론(Gender ideology) (Coverman, 1985)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제약은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thesis)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는 무급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상대적 자원론(Relative resources)은 소득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달라지고 무급노동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무급노동을 덜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는 주로 한국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부분 관련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협상력이 발휘되는지 혹은 젠더 전시적 행태가 나타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김수정·김은지, 2007; 안미영, 2016; 오지혜, 2016; 은기수, 2009). 가족 내의 자원 분배는 이타심(Altruism)의 발현이 아닌 협상(Negotiation)의 결과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자원론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가사노동 분배를 두고 남편과 아내 사이 경제적 협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협상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시장성이다(How marketable she or he is). 결혼이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으로 해석되고 있는 개인의 시장성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교육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이다. 교육수준은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인적 자원의

로 가족 내에서 경제적 협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고용은 보다 더 강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이 고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고용은 이미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 자원력이 강한 자는 그만큼 강한 경제적 협상력을 지니게 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노동인 무급노동을 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무급노동 분배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상당수 있는 반면 근로시간의 상대성 혹은 시간제/전일제와 경제적 협상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국외 연구가 다뤄온 자원의 상대성은 소득 중심 혹은 교육으로의 확대 정도로 그치고 있다(Evertsson & Neramo, 2004). 국내 연구자 중 은기수(2009)는 부부간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둘 다 일하지 않음, 남편만 일함, 남편이 아내보다 많이 일함,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시간 일함, 아내가 남편보다 많이 일함, 아내만 일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편만 일하는 부부의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근로시간이 길거나,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거나, 아내의 근로시간이 남편에 비해 긴 경우나, 아내만 일하는 부부의 남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부양자 가족의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이 동일한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부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영(2017)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맞벌이 부부의 자원상대성이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사노동분배를 평등(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와 동일하거나 많은 경우)과 불평등(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많은 경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급노동시간의 상대성은 아내의 가사노동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분배는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남편보다 긴 경우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돌봄 노동의 경우 상대적 유급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은기수의 연구는 상대적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결과로 자원의 상대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지만,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을 할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대체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할 것임을 함의한다. 안미영의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상대적 유급노동시간이 여성의 무급노동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의 근로시간이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는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로 근로하는 기혼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자에 비해 경제적 협상을 통해 무급노동을 적게 하는지 불분명하다. 혹은 시간제 근로가 전일제 근로에 비해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협상력이 낮아 더 불평등하게 무급노동을 분배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시간제 고용이 새천년 이후 중요한 여성 유급노동의

한 형태로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시간제 고용이 가족 내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젠더화된 권력관계(Gendered power relations)에 관한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났다(Goldscheider & Waite, 1991). 시간제 고용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자원이라고 주장한 Stier and Lewin-Epstein(2000)은 이스라엘 사례연구를 통해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제 근로 여성이 더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배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Horrel(1994)은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만 가사노동을 남편과 아내가 분담하였으며 반면 아내가 시간제로 일하면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시간제 고용은 문지방효과(Threshold effect)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면 관련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전업주부에 비해 가족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적인 측면에서 시간제 고용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몇 가지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분석은 젠더 내 불평등과 젠더 간 불평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사노동 분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종속변인의 조작화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외 많은 연구가 시간량을 종속변인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 집단 내 가사노동 시간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즉 젠더 내 불평등에 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Brines(1994)는 경제적 독립성이 높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경제적 독립성이 낮은 여성보다 적지 않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젠더 전시라고 칭하였다. 이 이론은 종속변인을 가사노동 시간량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국내의 많은 연구도 시간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은기수(2009)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55세 이하 기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사노동이 증가하고 여성은 소득에 의해 본인의 가사노동이 줄어들음을 발견하였다. 가사노동시간분배(분담률 혹은 분담 형태)를 종속변인으로 조작화하는 것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을 모두 고려하고 분담(Division)을 분석함을 의미한다. Greenstein(2000)은 Brines(1994)의 젠더 전시론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량과 분담률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분담률에서 젠더 전시적 행태가 남성에게서도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안미영(2016)은 2014년 생활

시간조사를 활용하여 17세 이상의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 분담형태(평등 혹은 불평등 분배)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소득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에 비해 적다고 하여 그녀가 더 평등하게 남편과 가사노동을 분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일제 근로 여성이 시간제 근로 여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고 해서 그녀가 더 평등하게 남편과 가사노동을 분배한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앞서 언급한 Stier and Lewin-Epstein(2000)은 분담정도(누가 가사노동을 더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가사노동 시간량과 가사노동시간분배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한국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는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그리고 가구수준의 변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여성 혹은 남성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인만을 고려하고 부부의 특성을 분석에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남편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그리고 가구소득, 자녀수 등 가구수준의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한다(Szinovacz, 1980). 단순히 여성 혹은 남성이 가구로 얼마의 소득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임금의 시간제 근로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녀가 어떤 인구경제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사는지, 가구수준의 환경은 어떠한지에 따라 그녀의 가사노동분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가 개인의 성역할 인식, 가용시간, 절대적 소득 그리고 상대적 경제력(가구로 얼마의 돈을 가져오는지 혹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존적 혹은 독립적인지)에 집중한 나머지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가지는 특성, 즉 거의 모든 자원을 공유하며 구성원이 상호의존적인 상태에서 결정과 행태를 한다는 사실을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즉 시간제 근로가 근로 시간량과 달리 독립적인 자원으로서 가사노동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데이터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연령 혹은 계층에 따른 분포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교육수준의 60대 이상의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다. Stier and Lewin-Epstein(2000)의 연구는 이스라엘의 여성 시간제 근로의 분포가 이러한 특징이 없음을 가정하고 분석한 듯하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제안하거나 충분히 정교한 논의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더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것이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계층에서 그렇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OECD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여성중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2000년 22.8%에서 2016년 43.2%로 증가한다. 20-24세 연령대의 증가도 두드러지는데 2000년 6.7%에서 2016년 18.7%로 증가한다. 30-34세의 여성 시간제 고용은 감소한 반면 35-39세는 9.8%에서 14.9%로, 40-44세의 경우 8.2%에서 13.8%로, 45-49세의 경우 7.4%에서 12.1%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근로형태로 시간제 근로가 점점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시간제 근로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고령의 저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젊은 층의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사노동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거하는 사례 중 경제활동여부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형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제, 전일제를 측정하고 경제활동 상태에서 일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여성을 전업주부로 포함하였다. 이들 중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응답하였음에도 유급노동시간에 0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남편에 대한 정보 중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응답하였음도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8,491명의 기혼여성을 연구샘플로 구성하였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가 존재하며 특히 장시간 근로가 특징인 한국의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OECD에서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35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제/전일제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시간조사의 수집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임금근로자에 한해 고용계약 시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거나 격일제나 교대제를 포함하여 정규직원과 동

일한 시간동안 근로하는 일하는 경우를 전일제근로(Full time), 고용 계약시에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행태를 시간제근로(Part time)로 취업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제 근로는 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를 제외하였다.

2. 변수설명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가사노동 시간량, 분담률 및 분배형태이다. 가사노동은 주행동 및 동시행동으로 응답한 가정관리에 포함하는 모든 활동에 사용한 시간과 가정관리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포함하였다. Presser(1994)와 van Berkel(1997)는 쇼핑은 다른 가사노동 활동(밥하기 빨래하기 등)과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으로 상품매장/상품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관련 행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남성과 여성 모두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쇼핑을 가사노동에 포함하였다. 반면 애완동 식물돌보기는 대부분이 회피하는 노동이라는 가사노동이 가지는 기본적 가정에 적절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에서 제외하였다. 가사노동 분배형태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행위에 할애된 시간량을 고려하여 아내의 시간량이 부부 전체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불평등 분배(0), 50% 미만인 경우 평등분배(1)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인 아내의 근로형태는 시간제(1) 또는 전일제(2)로 응답한 임금근로자와 일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여성(0)으로 구성하였다.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은 일하기에 포함된 주행동 및 동시행동에 할애된 총 시간과 출퇴근관련 이동시간도 포함하였다. 남편의 근로형태를 일하지 않음, 시간제, 전일제로 명목수준으로 측정하지 않고, 연속변인인 시간량으로 분석에 포함하여 남편의 가용시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성역할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가 수집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해당 질문에 대해 1)적극찬성, 2)약간 찬성, 3)약간 반대, 4)적극 반대 중 선택하며 값이 적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인식으로 간주하였다.

상대적 자원은 생활시간조사가 수집한 월평균 임금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월평균 임금을 구간으로 수집한다. 본 연구는 없음을 0으로, 50만원 이하는 50만원으로, 50-100, 100-150 등 구간으로 수집된 정보

는 중간값으로 리코딩하고 마지막 구간인 500만원 이상은 500으로 리코딩하였다. 생성한 남편과 아내의 소득 자료를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 독립성 측정방법을 활용하여(본인 소득-배우자소득/본인소득+배우자소득) 경제적 독립성 변인을 구성하였다. 경제적 독립성은 부부 소득의 총합에 대한 부부간의 소득의 차이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 값은 -1에서 1로 나타난다. 경제적 독립성 개념은 단순히 가구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혹은 부부 소득 중 누가 더 많은가 보다 부부는 본인이 부부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제외하고(혹은 고려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외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개념이며 특히 소득 독립성(의존성)에 따른 경제적 협상력과 가사노동 시간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후 국내외 수많은 연구에 영향을 준 Brines(1994)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이후 2000년 Greenstein이 성역할 중립론(Deviant gender role neutralization)을 주장하는데 근거가 된 경험적 결과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반면 Gupta(2007)는 가사노동 시간량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과의 소득의 상대성이 아닌 절대적 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지혜(2016)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편 소득비를 분석에 포함하면 여성의 절대 소득의 효과가 낮아짐을 발견하고 남성과의 소득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절대적 소득이 높다고 하여 경제적 독립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절대적 소득이 낮다고 하여 남편과의 소득의 위치에 따른 경제적 독립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아내의 연령(남편의 연령은 공선성 진단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내와 남편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미만 대학 교육부터 그 이상을 1로, 고등학교를 포함한 이하를 0으로 코딩하였다. 건강상태는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친다(Bianchi et al, 2000).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1)매우 좋음 2)좋은 편 3)보통 4)나쁜 편 5)매우 나쁨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정보를 그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구수준의 변인으로 10세 미만 가구원수와 지난 1년간 월평균 총가구소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요일(주중 혹은 주말)에 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샘플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49.2세, 남편의 연령은 52.3세로 나타났다. 2-3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37.5%, 남성은 45.8%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일하기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한 시간 정보가 있는 기혼 여성 중 전일제 근로는 3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35.2%가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32.4%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동의하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남편의 51.4%와 차이가 있다. 연구 샘플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75만원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0.6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샘플 중 연평균 가구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비율은 15.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44세 연령대의 66.3%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반면 45세 이상의 그룹은 18.6%로 나타났다. 20-44세 연령대 기혼여성의 남편 중 대학 이상 교육수준은 69.4%인 반면 45세 이상의 경우 29.9%로 나타났다. 20-44세 여성의 24.1%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반면 45세 이상 여성의 39.1%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20-44세

〈표 1〉 연구샘플의 기술통계(평균/표준편차, 비율)

		전체	20-44	45+
본인 연령		49.2/13.0	36.5/5.1	58.1/9.7
남편 연령		52.3/13.6	39.3/5.8	61.2/10.2
본인 교육수준 (대학 이상)		37.5%	66.3%	18.6%
남편 교육수준 (대학 이상)		45.8%	69.4%	29.9%
본인 취업형태	전일제	30.3%	33.5%	27.6%
	시간제	7%	7.1%	6.9%
	일하지 않음	62.7%	59.4%	65.5%
본인 건강상태 (좋음)		35.2%	37.2%	33.6%
남편 건강상태 (좋음)		39.3%	38.1%	40.2%
본인 성역할인식 (전통적)		32.4%	24.1%	39.1%
남편 성역할인식 (전통적)		51.4	48.4%	53.8%
본인 소득		75.4/101.7	82.8/109.9	69.4/94.1
남편 소득		256.0/143.9	249.2/147.1	261.6/141.0
남편 근로시간		429.7/248.3	522.9/190.5	353.9/263.6
경제적 독립성		-0.6	-0.6	-0.7
10세 미만 가구원수		0.5/0.8	1/0.9	0.1/0.3
연평균 가구소득 (5,000만원 이상)		15.2%	14.8%	15.5%
주말		26.7%	21.9%	30.7%

에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44세 여성의 경우 약 83만원, 45세 이상 여성은 69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4세 연령대가 약간 덜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44세 여성 중 33.5%가 전일제 근로로 취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4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27.6%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샘플의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취업 여성의 인구경제학적 특성과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량, 분담률, 분담형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Stier and Lewin-Epstein(2000)의 연구와 동일하게 로짓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연구샘플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에 의해 가사노동 분담형태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전체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소득 자원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동일한 분석을 연령대별로 실시하였다. 즉 시간제 근로가 가사노동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연령대(20-44세, 45세 이상)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연령대별로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따라 소득자원이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표 2〉는 연구샘플의 인구경제학적 특성과 가구수준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전일제 근로여성의 45.9%, 시간제 근로여성의 40.6%, 전업주부의 37%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 여성의 21.1%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32.3%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시간제 근로 여성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독립성은 전업주부가 -0.9, 시간제 여성이 -0.3으로 전일제 근로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전일제의 경우 대략 8시간이 조금 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시간제 근로는 5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편의 비율은 전일제 근로 여성의 경우 50.2%, 시간제 근로 여성은 47.9%로 나타났다.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의 비율은 전일제로 취업중인 여성이 39.3%로 가장 낮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57.3%로 나타났다.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은 전일제 근로 여성의 경우 23.9%, 시간제 근로 여성의 경우 15.3%, 전업주부의 경우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샘플의 취업형태별 인구경제 및 가구특성(평균/표준편차, 비율)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연령	50.5/14.8	47/10.6	44.5/9.0
교육수준 (대학 이상)	37%	40.6%	45.9%
유급노동시간 (분)	10.8/51.7	302.9/140.8	489.7/136.9
성역할 인식 (전통적)	32.3%	31.5%	21.1%
월평균 소득	23.7/59.1	91.8/55.0	178.8/125.0
경제적 독립성	-0.9/0.3	-0.3/0.3	-0.3/0.3
건강상태 (좋음)	35.7%	35.8%	34%
남편 연령	53.4/15.3	50.1/11.5	47.5/9.7
남편 교육수준 (대학 이상)	46.3%	47.9%	50.2%
남편 유급노동시간 (분)	389.9/261.0	502.7/192.3	495.3/212.6
남편 성역할 인식 (전통적)	57.3%	50.9%	39.3%
남편 건강상태 (좋음)	39.8%	39.6%	38.1%
남편 월평균 소득	225.2/142.0	214.7/132.4	329.4/121.7
10세 미만 가구원수	0.5/0.8	0.5/0.8	0.4/0.7
연가구소득 (5000만원 이상)	11%	15.3%	23.9%

〈표 3〉은 근로형태별 가사노동 시간량, 분담률 그리고 분배형태를 보여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하루 평균 272.7분, 시간제 취업 여성은 199.1분, 전일제 근로 여성은 118.5분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연령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20-44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분담률은 심각한 수준의 젠더화된 가사노동분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90.4%를 담당하고 있었고, 시간제 근로 여성의 경우 조금 더 높은 90.9%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일제 여성 역시 전체 부부 가사노동시간의 82.3%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20-44세 시간제 근로 여성의 분담률은 92.3%로 전업주부의 93.7%에 비해 낮은 반면 45세

이상의 경우 90%를 담당하면서 동일연령대의 전업주부가 88%를 담당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등분배의 비율은 전일제 근로 여성의 경우 13.5%인 반면, 시간제 근로여성은 3.1%, 전업주부는 3.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44세 시간제 근로 여성 중 평등분배의 비율은 3%이고 전업주부는 1.1%인데 반해 45세 이상 시간제 근로 여성의 평등 분담 비율은 3.1%로 전업주부의 4.4%에 비해 낮았다.

〈표 3〉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

	가사노동 시간량			가사노동 분담률			가사노동 분담형태(평등)		
	전체	20-44	45+	전체	20-44	45+	전체	20-44	45+
전일제	118.5	108.3	128.5	82.3	83.1	81.7	13.5	12.3	14.7
시간제	199.1	191.7	205.3	90.9	92.3	90	3.1	3.0	3.1
전업주부	272.7	269.8	274.8	90.4	93.7	88	3.0	1.1	4.4

〈표 4〉는 시간제 근로가 무급노동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변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약한 수준이지만 시간제 근로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무급노동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tier and Lewin-Epstein(2000)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한국의 경우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족 내 젠더 평등한 분배에 미비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일제 근로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해 더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평등분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불평등 분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 본인의 성역할 인식은 관련이 없으나,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주요하게 나타나 남편의 인식이 진보적일수록 더 평등한 가사노동분배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분배 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B	S.E	Exp(B)
(상수)	-2.651***	0.418	0.071
본인 교육	-0.135	0.151	0.873
배우자 교육	0.191	0.133	1.211
본인 건강상태	0.407***	0.065	1.502
배우자 건강상태	-0.236***	0.066	0.79
본인 성역할인식	-0.09	0.066	0.914
배우자 성역할인식	0.261***	0.067	1.299
본인 근로형태			
시간제	0.456+	0.276	1.578
전일제	2.016***	0.143	7.506
경제적 독립성	0.315	0.232	1.37
본인 월소득	0.003***	0.001	1.003
10세 미만 가구원수	0.113	0.092	1.12
가구소득	-0.153***	0.037	0.858
주중주말	-0.294	0.118	0.745
배우자 근로시간	-0.004***	0	0.996
연령그룹	-0.078	0.15	0.925
-2 로그우드	2969.540***		
Cox와 Snell의 R제곱	0.102		
Nagelkerke R-제곱	0.272		

+p < 0.1, *p < 0.05, **p < 0.01, ***p < 0.001

〈표 5〉는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가사노동 분담률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남편의 근로시간의 영향은 모든 그룹에서 나타났다. 본인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남편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은 시간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편의 인식이 진보적일수록 전업주부와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었고 모든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줄었다. 흥미롭게도 절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와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 근로 여성의 경우 절대적 소득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적 소득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줄이지 않은 반면 시간제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률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절대적 소득에 의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취업여성의 경우 경제적 독립성과 본인의 월소득이 클수록 가사노동 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과 부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가사노동 시간량			가사노동 부담률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상수)	297.435*** (16.628)	241.97*** (31.857)	233.489*** (13.314)	85.266*** (2.077)	77.45*** (5.495)	70.515*** (4.561)
본인 교육	-8.596* (4.68)	-2.142 (9.053)	-8.546* (3.525)	-0.4 (0.585)	1.726 (1.557)	-1.535 (1.211)
배우자 교육	-13.091** (4.319)	-6.868 (8.537)	0.556 (3.252)	-0.31 (0.54)	0.576 (1.468)	-0.187 (1.116)
본인 건강상태	-5.532** (2.116)	2.45 (4.563)	0.507 (1.741)	-2.877*** (0.264)	0.074 (0.787)	-0.886 (0.598)
배우자 건강상태	1.855 (2.223)	4.134 (4.833)	-0.478 (1.761)	1.572*** (0.277)	2.14* (0.832)	0.896 (0.606)
본인 성역할인식	2.441 (2.184)	3.347 (4.084)	5.451** (1.654)	0.264 (0.273)	0.225 (0.703)	0.716 (0.567)
배우자 성역할인식	-5.132* (2.164)	-2.431 (4.24)	-5.138** (1.652)	-0.738** (0.271)	-2.72*** (0.731)	-2.09*** (0.569)
본인 근로시간	-0.207*** (0.032)	-0.333*** (0.025)	-0.326*** (0.01)	-0.009* (0.004)	-0.014** (0.004)	-0.041*** (0.003)
배우자 근로시간	0.037*** (0.008)	0.053** (0.019)	0.038*** (0.006)	0.028*** (0.001)	0.031*** (0.003)	0.058*** (0.002)
경제적 독립성	12.537 (8.392)	-14.135 (13.921)	-16.062* (6.594)	0.009 (1.048)	-0.146 (2.396)	-4.878* (2.285)
본인 월소득	-0.182*** (0.048)	0.003 (0.079)	-0.053* (0.022)	-0.002 (0.006)	-0.023* (0.014)	-0.019* (0.008)
10세 미만 가구원수	-18.677*** (2.713)	-13.295* (5.276)	-5.346* (2.201)	-0.879** (0.339)	-1.021 (0.911)	-0.265 (0.758)
가구소득	6.377*** (0.987)	-0.784 (2.202)	2.002* (0.983)	0.186 (0.123)	0.75* (0.379)	1.289*** (0.337)
주중주말	-7.833* (3.7)	-4.603 (8.637)	-5.778 (3.512)	0.695 (0.462)	0.867 (1.489)	-0.749 (1.201)
연령그룹	-6.027 (4.959)	12.765 (9.09)	15.744*** (3.164)	-0.612 (0.619)	0.259 (1.571)	2.215* (1.087)
R2	0.043***	0.242***	0.349***	0.222***	0.203***	0.274***

+p < 0.1, *p < 0.05, **p < 0.01, ***p < 0.001

〈표 6〉은 연령대별 가사노동 분배 형태에 시간제 근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0-44세 연령대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더 평등한 무급노동 분배를 의미하였다. 반면 한국의 시간제 근로 여성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4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일제로 취업한 여성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업주부에 비해 더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독립성이 분담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절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평등한 가사노동분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영향이 나타났는데 배우자의 진보적인 인식은 평등한 가사노동 분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표 6〉 연령대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분배형태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20-44			45+		
	B	S.E	Exp(B)	B	S.E	Exp(B)
상수	0.389	0.974	1.475	-4.092***	0.843	0.017
연령	-0.046	0.018	0.955	0.007	0.01	1.007
본인 교육	-0.072	0.221	0.931	-0.326	0.23	0.722
배우자 교육	0.219	0.225	1.245	0.163	0.171	1.178
본인 건강상태	0.064	0.114	1.066	0.559***	0.081	1.75
배우자 건강상태	-0.278*	0.119	0.758	-0.22**	0.08	0.802
본인 성역할인식	-0.216*	0.113	0.805	0.001	0.082	1.001
배우자 성역할인식	0.323**	0.113	1.381	0.2*	0.085	1.222
배우자 근로시간	-0.005***	0	0.995	-0.004***	0	0.996
본인 근로형태						
시간제	0.925*	0.459	2.521	0.356	0.376	1.427
전일제	2.422***	0.31	11.273	1.938***	0.201	6.946
경제적 독립성	0.248	0.389	1.281	0.125	0.326	1.133
본인 월소득	0.003*	0.002	1.003	0.004*	0.001	1.004
10세 미만 가구원수	0.029	0.104	1.029	0.485*	0.218	1.625
가구소득	-0.198	0.078	0.82	-0.116*	0.046	0.89
주중주말	-0.291*	0.242	0.747	-0.286*	0.138	0.751
-2 로그우드	1035.696***			1896.687***		
Cox와 Snell의 R제곱	0.108			0.101		
Nagelkerke R-제곱	0.329			0.249		

+p < 0.1, *p < 0.05, **p < 0.01, ***p < 0.001

〈표 7〉 20-44세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가사노동 시간량			가사노동 분담률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상수)	173.6*** (28.034)	133.906* (60.581)	164.314*** (21.678)	80.633*** (2.85)	76.011*** (9.97)	47.421*** (7.995)
연령	3.249*** (0.501)	4.344*** (1.144)	2.423*** (0.375)	0.142** (0.051)	0.078 (0.189)	0.583*** (0.139)
본인 교육	-5.363 (5.552)	-2.464 (12.433)	-10.257* (4.409)	-0.138 (0.563)	2.074 (2.044)	-1.67 (1.625)
배우자 교육	-19.39** (5.788)	-10.848 (12.436)	2.153 (4.327)	-1.128+ (0.588)	2.354 (2.047)	0.531 (1.596)
본인 건강상태	4.023 (3.028)	9.457 (6.542)	1.477 (2.341)	-0.612* (0.307)	0.802 (1.08)	-1.639+ (0.861)
배우자 건강상태	-2.845 (3.177)	-8.42 (7.21)	-0.194 (2.345)	-0.423 (0.322)	0.639 (1.188)	1.269 (0.863)
본인 성역할인식	2.586 (2.994)	-8.203 (6.088)	4.95* (2.354)	0.346 (0.304)	-1.46 (1.004)	1.481+ (0.864)
배우자 성역할인식	-8.306** (2.895)	-2.418 (5.642)	-6.588** (2.213)	-0.693* (0.294)	-1.537 (0.93)	-2.475** (0.818)
본인 근로시간	-0.351*** (0.073)	-0.264*** (0.038)	-0.285*** (0.015)	-0.027*** (0.007)	-0.003 (0.006)	-0.034*** (0.005)
배우자 근로시간	0.022 (0.013)	0.032 (0.03)	0.016 (0.01)	0.029*** (0.001)	0.036*** (0.005)	0.058*** (0.004)
경제적 독립성	-0.286 (12.442)	-11.623 (20.765)	-4.821 (9.091)	1.49 (1.263)	1.543 (3.426)	-5.496 (3.379)
본인 월소득	-0.034 (0.075)	0.017 (0.1)	-0.104** (0.032)	-0.004 (0.008)	-0.031+ (0.016)	-0.016 (0.012)
10세 미만 가구원수	-13.455*** (2.761)	-6.199 (5.754)	-1.799 (2.188)	-0.669* (0.28)	-1.04 (0.948)	0.965 (0.807)
가구소득	3.515* (1.647)	-1.919 (3.781)	2.081 (1.55)	0.038 (0.167)	0.093 (0.623)	0.817 (0.568)
주중주말	-16.57** (5.9)	-13.58 (14.802)	-13.164* (5.282)	-0.546 (0.598)	-0.59 (2.449)	-0.043 (1.931)
R2	0.074***	0.202***	0.318***	0.228***	0.225***	0.231***

+p < 0.1, *p < 0.05, **p < 0.01, ***p < 0.001

마지막으로 <표 7>과 <표 8>은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취업형태별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0-44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분담률의 차이는 배우자의 학력에 의해 주요하게 변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의 영향도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진보적인 인식을 가진 남편일수록 그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세 미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아지면 돌봄 시간에 더 할애하는 경우일 수 있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0-44세 전일제로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본인의 절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량이 줄어들었으나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이 덜 진보적인 성역할인식을 가진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기수(2009)는 2004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취업형태별로 보면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20-44세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이 진보적이면 주요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4세 시간제로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연령,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독립성이나 절대적 소득과는 관련이 없었다. 전업주부와 달리 배우자의 교육수준이나 성역할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분담률의 경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본인의 절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분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나타난 20-44세 연령대의 가사노동분배형태가 시간제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첫째, 시간제 근로여성은 절대적 소득을 활용한 경제적 협상을(분담률의 경우, <표 7>)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제 근로 여성은 전업주부 혹은 전일제 근로 여성과 달리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음도 의미 있는 결과이다. 전일제 여성이 전업주부에 비해 더 평등한 가사노동(<표 6>)을 하는 이유는 절대적 소득에 의한 영향(시간량의 경우, <표 7>)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나 시간제 근로 여성과 달리 본인의 교육수준과 성역할 인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의 결과일 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8〉 45세 이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가사노동 시간량			가사노동 분담률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전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상수)	371.246*** (28.169)	255.524*** (65.641)	248.795*** (27.763)	89.892*** (3.809)	92.495*** (11.738)	95.679*** (9.033)
연령	-1.276*** (0.337)	-0.192 (0.782)	0.377 (0.378)	-0.104* (0.046)	-0.176 (0.14)	-0.264* (0.123)
본인 교육	-9.083 (7.79)	4.045 (13.535)	0.249 (5.726)	-0.815 (1.055)	0.651 (2.418)	0.832 (1.86)
배우자 교육	-5.34 (6.236)	-1.952 (11.559)	2.104 (4.867)	0.486 (0.845)	-1.097 (2.066)	-0.552 (1.584)
본인 건강상태	-9.674** (2.93)	-0.52 (6.426)	0.598 (2.53)	-4.321*** (0.397)	-1.066 (1.151)	-0.092 (0.828)
배우자 건강상태	5.729+ (3.04)	12.863* (6.5)	0.431 (2.594)	3.038*** (0.411)	3.201** (1.163)	0.672 (0.851)
본인 성역할인식	1.17 (3.081)	11.268* (5.618)	6.47** (2.315)	0.155 (0.417)	1.925+ (1.004)	-0.032 (0.754)
배우자 성역할인식	-1.282 (3.107)	-3.424 (6.383)	-1.616 (2.44)	-0.702 (0.421)	-4.618*** (1.14)	-1.488+ (0.799)
본인 근로시간	-0.173*** (0.037)	-0.37*** (0.032)	-0.35*** (0.013)	-0.005 (0.005)	-0.023*** (0.006)	-0.045*** (0.004)
배우자 근로시간	0.021+ (0.011)	0.052* (0.026)	0.051*** (0.009)	0.026*** (0.002)	0.024*** (0.005)	0.056*** (0.003)
경제적 독립성	11.553 (11.423)	-15.804 (19.056)	3.055 (10.395)	-2.057 (1.544)	-1.857 (3.404)	1.46 (3.415)
본인 월소득	-0.183** (0.064)	-0.011 (0.129)	-0.08* (0.034)	0.005 (0.009)	-0.018 (0.023)	-0.035** (0.011)
10세 미만 가구원수	-16.544* (8.113)	15.761 (17.661)	-3.008 (10.53)	-0.985 (1.097)	3.762 (3.154)	-6.737* (3.412)
가구소득	3.122* (1.416)	-1.399 (2.977)	0.891 (1.326)	-0.032 (0.192)	0.926+ (0.532)	1.141** (0.434)
주중주말	-6.199 (4.863)	-6.645 (10.861)	0.371 (4.687)	1.32* (0.658)	1.236 (1.94)	-0.574 (1.527)
R2	0.045***	0.302***	0.380***	0.203***	0.211***	0.328***

+p < 0.1, *p < 0.05, **p < 0.01, ***p < 0.001

〈표 8〉은 45세 이상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전업주부의 시간량은 20-44세 경우와 동일하게 10세 미만 가구원수에 의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20-44세와 달리 가사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의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졌다. 전일제로 근로중인 45세 이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본인의 성역할 인식이 진보적이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10세 미만 가구원수에 의해 주요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량은 전업주부와 달리 본인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증가하였다. 본인의 성역할 인식이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 시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는 젠더내와 젠더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량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젠더내(여성 집단 혹은 남성 집단의 차이) 불평등을 분석하며, 분담률이나 분담 형태를 통해 남편과의 분담에서의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가족은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사회제도로써 무급노동 분배에 있어 개인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배우자의 그것과 가구수준의 변인에 의해 영향 받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교육수준이나 연령에 의해 사회마다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중장년 노년층의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가 발전하다가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 증가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더 평등한 가사노동 분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국외연구와 달리 한국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미취업에 비해 가족 내 노동 분배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모든 연령대가 아닌 20-44세 연령대에서만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절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대다수의 시간제 근로 여성이 포진되어있는 45세 이상의 경우 시간제 근로는 무급 노동 분배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기혼 여성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시간량이나 부담률)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성역할 인식에 의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젠더평등에 기여하는가? 공사 영역에서 젠더화된 권력관계에 시간제 근로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시간제 근로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으로 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발전할 경우,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인 가족 내 젠더화된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흥미롭기도 하고 따라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은 20-44세 기혼 여성, 일반적으로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는 시간제 근로가 사적 영역의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높은 교육수준과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과 사는 여성들에서 시간제 근로가 사적 영역에서 젠더화된 권력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2016년 실시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취업여성은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제 근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이는 2013년 실시된 동일한 조사 결과와 반대의 결과이다. 분명한 건 이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제 근로는 지엽적인 의미의 일자리가 아닐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는 마치 특정 직종을 시간제 일자리로 규정하는 사회적 오명을 부여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육아 등으로 미취업 상태인 많은 여성들 중 유급노동자로서 그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바라는 선호에 우리의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여성 자신의 경력/인생과 자녀 양육, 시댁 등의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여성이 이럴 바엔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사회와 가족에게 더 인정받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패일 것이다. 한국 여성의 시간제 근로를 통한 노동시장참여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 그렇다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제고를

위해 무조건 시간제 근로를 확산할 일은 아니다. 양질의 시간제 근로는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탈산업화 시대 한국사회의 젠더노동계약에 대한 새로운 정립은 여성의 역할은 유급노동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의 적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현경·강신옥·장지연·이세미·오혜인(2015).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 2015-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제41권 제 2호, 147-174.
-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65-84.
- 김양희(2013). “유통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의 실제: 경력단절 여성의 판매노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제2호, 39-66.
- 김윤호·성지미·박진명·우미혜(2014). “시간제 근로 유형화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다수사례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2호, 115-148.
- 김혜진(2015).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1-17.
- 국미애(2013). “유연근무제와 노동시간의 젠더 정치: 시간제 근무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30권 제1호, 3-24.
-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1241-1275.
- 문지선(2015).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43-82.
- 신경아(2013).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여성주의적 소고”. 페미니즘연구, 제13권 2호, 121-141.
- 신경아(2014).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여성학, 제30권 제1호, 81-112.
- 신경아(2015).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의 조직내 주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31권 제2호, 131-179.
- 신경아(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연구, 제16권 제1호, 321-359.
- 이옥진(2013). “시간제 근로(Part time jobs)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개념 적용가능성과 결정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135-153.
-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제28권 제3호, 35-62.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145-171.

- 오지혜(2016).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상대소득 및 절대소득 효과: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을 넘어서”.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233-270.
-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112권, 14-40.
- 안미영(2017). “자원의 상대성과 가족 내 노동분배의 젠더 불평등: 한국 유급노동자 부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83-102.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자료]
- 황수경(2011).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유연근무제 정책과제”. 고용노동부 주최 남녀고용평등정책세미나발표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4월 5일
- 홍승아(2012).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전략적 선택인가, 젠더 함정인가?” *가족과 문화*, 제24권 4호, 135-165.
- Becker, G.(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talova, J. A. & Cohen, P. N.(2002). Premarital cohabitation and housework: Coupl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43-755.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ood, R. O. and Wolfe, D. M.(1960). *Husbands &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 Brines, J.(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Evertsson, M & Nermo, M.(2004). Dependence within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labor: Comparing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72-1286.
- Fraser, N.(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Goldscheider, F. K., & Waite, L. J.(1991). *New Families, No Families?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Home*.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eenstein, T. N.(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Gupta, S.(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2), 399-417.
- Horrel, S.(1994). Household time allocation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M. Anderson, F. Bechhofer, & J. Gershuny(Eds.),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pp. 198-224).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18). *Labor Statistics*. OECD.
- Presser, H. B.(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48-364.
- Sørensen, A., & McLanahan, S.(1987). Married women's economic dependency 194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3), 659-687.
- Stier, H. & Lewin-Epstein, N.(2000).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90-410.
- Szinovacz, M.(1980). Female retirement : Effects on spousal role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3), 423-440.
- van Berkel, M.(1997). *Who Dominates When? : Asymmetrical Patterns of Influence among Dutch Husbands and Wives*. Netherlands : Katholieke Universiteit Nijmegen.

Abstract

Part-time Employment and Division of Housework among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Mi Young An*

This article examines part-time employment and division of housework among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A sample is drawn from 2014 Time Use Survey. Married women working part-time were found to divide housework more equally than housewiv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employment and housework division was found among women aged 20 and 44 while no evidence is found for those aged 45 and over. Time spent by all women working part-time was largely determined by number of family aged less than 10 and was free from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which was significantly influential for housewives' time spent on housework. Income either in absolute or relative terms was irrelevant for time spent on housework by married women working part-time. By contrast, we found that share of housework among the part-time workers largely increased if husbands had traditional attitude on gender role. But importantly the share was also subject to their absolute amount of income which decreased the unequal division of housework. Time spent by women aged 20 and 44 working part-time was free from husbands' education level, attitude on gender role and number of family aged less than 10 which were main determinants of housewives' time spent on housework. Share of housework of this group decreased with the absolute amount of income. By contrast, time spent by women aged 45 and over working part-time largely increased when husbands' health status was poor. Share of housework among the older female part-time workers was determined by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and health status. We discuss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ies in division of unpaid work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Keywords : housework division, part-time employment, gende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myan@kookmin.ac.kr)